

목포신항에 국내 첫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준공

단지 운영 등 통합관리시스템 7월 국내 연구 기관 입주 예정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술지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노력'



목포신항에 건립될 예정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조감도. 목포시 제공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목포신항에 건립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통합 거점으로, 목포시가 해상풍력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357억원, 연면적 3755㎡,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는 플랫폼센터는 해상풍력 산업의 전과정 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할 예정이다.

플랫폼센터는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프로젝트 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을 이끈다. 센터는 기업입주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며 1층에는 홍보관을 마련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운영된다. 7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9월 통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목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항만·배후단지·연구기관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플랫폼센터가 위치한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조립·운반·설치가 가능한 해상풍력 특화 항만으로 약 5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플랫폼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관련 국책연구과제 수행, 항만물류 시스템 고도화, 기술지원 등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신안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 유리한 여건 속에서 플랫폼센터의 준공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전용부두 조기확보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센터의 해상풍력 특별법 상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 연구 예산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10%로 상향... 6월 한 달간

전라남도 목포시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율 상향은 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 장기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현재 지류형 상품권은 모두 소진된 상

태이며 이번 할인은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 월 구매 한도는 총 50만원으로, 카드형 40만원, 모바일형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상향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할인을 상향인 만큼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우선예약제 도입... 편의성 향상

전라남도 목포시는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의 화장로 증설과 목포시민·신안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장례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우선예약제는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되며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장례 일정에 맞춰 시·군민의 화장 예약

이 가능해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고 장례문화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화장로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8억3000만원을 확보해 4월부터 공사에 착공,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추가 보강 사항이 발생해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개장 10년 만에 화장장 전면 개보수가 가능하게 됐다.

목포=정기찬 기자



최근 목포시가 임신부와 영유아 엄마를 대상으로 '초보 엄마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문화재단, 가가호호(家加好好)' 가족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목포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가족 소통 프로그램 '가가호호(家加好好)'를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가호호(家加好好)'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 속 공간을 활용해 이번 프로그램은 △웰니스 △제과제빵 △요리 △문학 △공예 △도에 △음악 등 총 7개 분야로 운영되며, 신혼부부, 노년기 부부, 취약계층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접수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운영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최근 운영한 '멘토와 함께하는 그린플로깅' 프로그램에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해 옥암근린공원 일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정화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와 함께하는 그린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 등 14명이 참여했다. 센터를 출발해 옥암근린공원, 둥근공원, 삼향천을 거쳐 평화광장까지 약 3.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했다.

참여자들은 활동에 앞서 환경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공원 일대를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그린플로깅을 실천했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소감을 나누고 단체 사진 촬영 및 증식을 함께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환경보호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플로깅 활동과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환경 봉사 커뮤니티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월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061-284-092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라남도 목포시보건소가 최근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팀균에 감염될 경우 급성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주로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접촉하면서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시 발열, 오한과 함께, 설사와 복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피부 괴사, 출혈이 발생하고 쇼크나 전신 패혈증으로 악화되

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감염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기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 자제하기 △만성질환자는 해산물 생식 삼가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비브리오패혈증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01 85°C 이상 가열하기
어패류 등은 85°C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기
- 02 조리도구 소독
어패류를 손질했던 조리도구들은 반드시 소독
- 03 바닷물 접촉 금지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